

선각 기상인 - 와다(和田)의 첫 작품

한국관측소학술보문(1권, 2권)

Scientific Memoirs of
the Korean Meteorological Observatory

기상청 연구관 전 영 신

아주 오래 전, 일본기상청 도서관에서 畠相運 교수님께서 어렵사리 찾아내신 와다의 첫 작품, 『韓國觀測所學術報文(한국관측소학술보문)』제1권(그림1). 그 책의 복제본을 우리 기상청에 기증해 주시기로 약속하셨다. 그래서 2001년 5월 화창한 봄날, 오용해 사무관과 4.19묘지 부근의 畠교수님께서 즐겨 가신다는 아담한 찻집을 찾아갔다.

융희 4년(1910년) 2월에 발간된 이 책은 우리나라의 연호를 사용하고, 발행처도 농상공부관측소이다. 불어로 쓴 표지에는 제물포(한국)이라고 쓰여 있다.

이 책의 편집양식은 매우 특이하다. 그러니까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넘겨 읽는 외국어로 쓰여진 내용과, 반대로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읽는 일본어로 쓴 같은 내용이 한권으로 합쳐져 약 100쪽이 되는 단행본이다. 우선 불어로 쓴 겉표지를 넘기면 와다가 짤막하게 쓴 불어 머리말이 나오며 독일어, 영어, 불어로 쓴 연구노트가 다음과

같이 등장한다. 1908년 당시의 우리나라 기상관측사업의 현황을 무카사(六箎 弘躬)가 독일어로 썼는데, 기상예보의 전달 수단인 신호 깃발과 관측지점의 위치를 소개하였다(그림2). 기상관측지점은 총 28개소로 관측소 1소(인천), 측후소 8소(목포, 부산, 대구, 경성, 평양, 원산, 용암포, 성진), 위생병원 2소, 분원 11소 등 이다. 그리고 한국과 만주남부지방에서의 물의 증발량 분포를 제2대 관측소장인 히라다(平田德太郎)가 영어로 소개하였고, 다음에는 와다가 측우기에 대해 불어로, 침성대와 누각에 대해서는 영어로 약 8쪽



Fig.1. 한국관측소학술보문(1권, 2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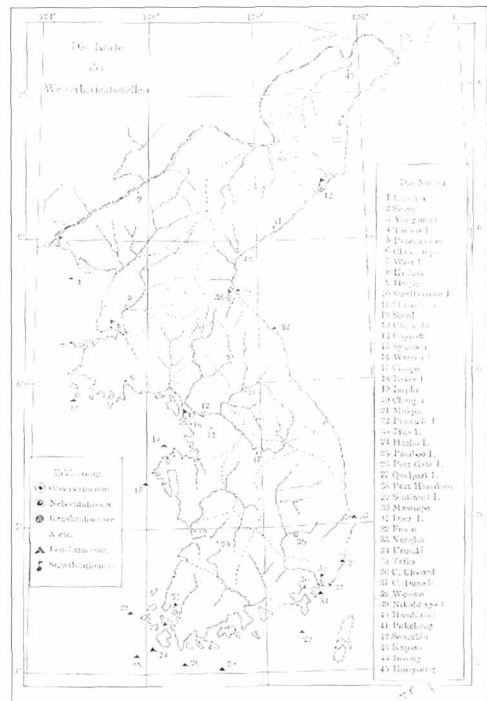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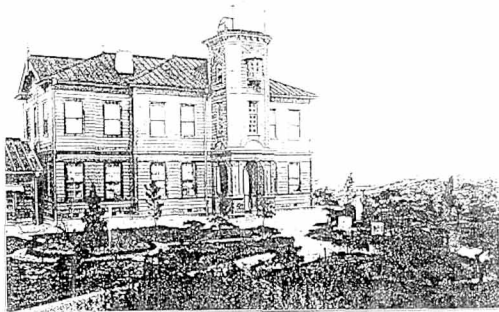


Fig.2. 독일어로 소개한 1908년의 45개 기상관측지점

이내의 짙막한 조사 결과가 게재되어 있다.

또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읽어가는 내용은 모두 일본어로 작성되었는데, 1908년 당시의 연평균기온, 일교차, 강수량, 기압, 풍향의 분포도가 나와 있다. 여기에 각 관측지점의 월별 기상자료도 수록한 것을 보면, 요즘 매년 발간되는 '기상연보'와 비슷하다. 한가지 재미있는 것은 기온이 내륙으로 갈수록 오히려 높아지는 분포로 분석한 것인데, 아마 내륙에 관측지점이 적어서 잘못 내삽된 등온선을 그린 듯하다. "세종·영조 때의 측우기", "경주 첨성대", "누각"도 각각 일본어로 쓰여 있다. 특히 "한반도에서는 이미 삼국시대부터 측후의 학술이 크게 번성한 것이 문헌으로 보아 명백하며, 경주와 개성에 현존하는 첨성대의 유적이 있다. ...(중략)... 조선 제4대 임금인 세종대왕의 시대는 한반도 고금의 황금시대라 불릴만하고, 제19대 왕인 영조는 52년간 재임하면서 측우기를 복원하고..."등 우리나라의 과거 관측역사를 기록하였다.

『朝鮮觀測所學術報文』 제2권은 일제강점기 1912년 조선총독부관측소의 이름으로 발간되었고 모두 일본어로 쓰여 있다. 조기현사무관이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찾아냈는데, 표지가 빠져있고, 부록도 일부 훼손된 것 같아 원본을 찾아 복원할 필요가 있겠다. 서문에는 "명치 43년(1910년) 8월에 일본과 한국이 합쳐진 결과로 한국 농상공부 소관이던 본 관측소는 같은 해 10월 조선총독부에 속하게 되었으나, 기상사업은 그



Building of the Korean Meteorological Observatory

이전과 조금도 다를 바 없어 이 책도 이름을 같이 하여 『조선관측소학술보문 제2권』으로 한다(한국이 조선으로 바뀜). 이 책의 내용은 주로 인천관측소 직원이 조사한 것을 수록하였으며, 부록에 붙인 천변지이년표는 앞으로 연구에 유용한 자료임에 틀림없다. 명치 45년 5월"라고 적혀있다. 1909년 당시의 기상 특징을 분석한 연구 노트와 우리나라의 옛 지진 자료를 종합 정리한 와다의 연구노트로 구성되어 있다. 제1권과는 달리 사진자료가 없고, 외국어로 번역되지 않았으나, 우리나라의 지진에 관해 고문헌 자료를 정리, 분석한 귀중한 자료임에 틀림없다.

와다는 1904년 7월부터 4년 동안 일본 제3임 시관측소장으로, 1907년 3월부터는 일본의 통감부 관측소장으로서, 1910년 8월부터 1915년 3월 31일까지 조선총독부 관측소장으로 근무하였다. 직함은 다르지만 당시 기상 본부였던 인천에서 기상업무를 총괄하였다. 이 두 권의 책은 1910년과 1912년에 출판되었으며, 측우기와 첨성대, 누각을 외국어로 소개한 최초의 단행본이며, 우리나라의 옛 지진관측 기록을 정리한 책으로서 가장 먼저 손꼽을 만하다.

참고문헌

- 和田雄治, 1910: 韓國觀測所學術報文, 農商工部觀測所, 100pp.
- 和田雄治, 1912: 朝鮮觀測所學術報文, 朝鮮總督府觀測所, 59pp.
- 金聖三, 1977: 한국기상학사, 고려대학교, 210-231.
- 全相運, 1993: 잃어버린 章, 전과과학사, 231-237.
- 全映信, 2001: 선각기상인-와다(和田)의 삶, 한국기상학회회보 6월호, 13-14.

다음호에는
선각 기상인 - 와다(和田)의 정기간행물 (포켓북)
"일봉편람 (1909-1945)"을 게재할 예정입니다.